

j.j.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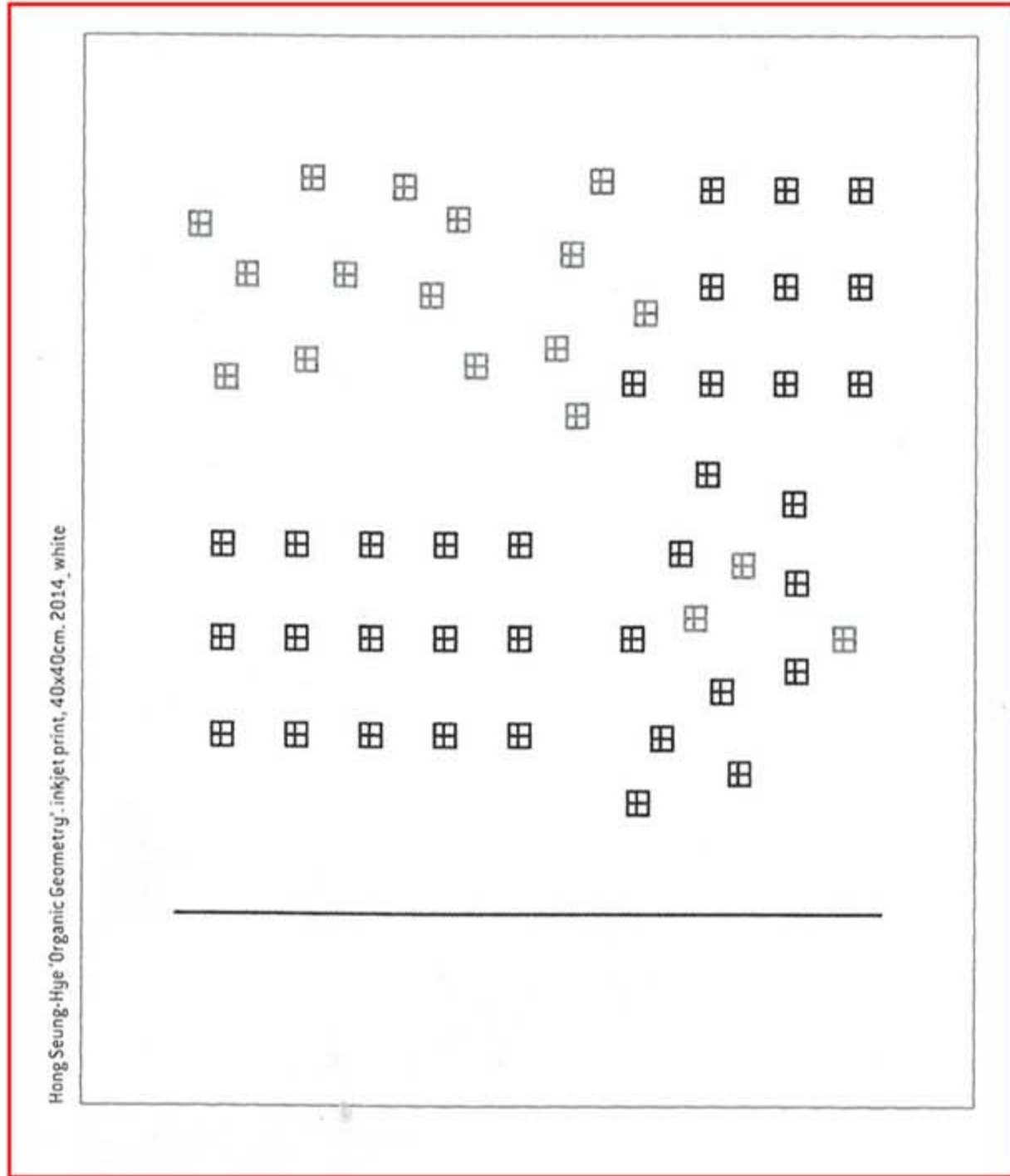
MONTHLY LIFE DESIGN
MAGAZINE

MEMBERSHIP
MAGAZINE OF
GRAND HYATT SEOUL

August 2014
+ NO.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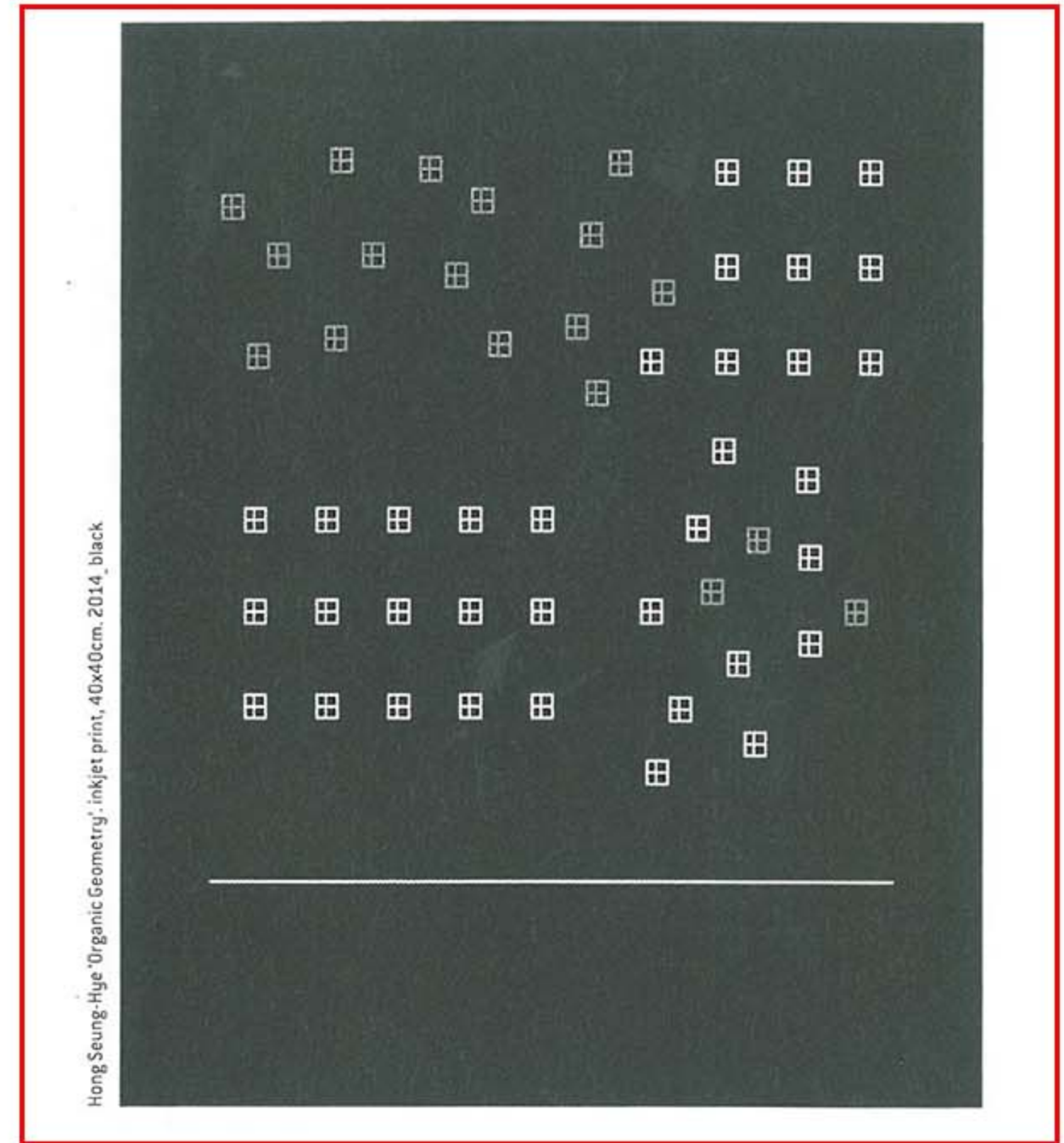
사람들은 늘 떠들지_THIS IS NOT A METAPHOR_ARTIFICIAL WONDERLAND_SO NEAR, SO FAR 그의 거쳐_FEATURING FANTASTIC
DISCOVERY 나인 듯 한숨 자는 꿈꾸듯 꼬옥 감은 눈뜯 듯 자는 듯 아닌 듯_RE:PLACE YOUR BASE



Hong Seung-Hye 'Organic Geometry', inkjet print, 40x40cm, 2014, white

1	+	=	3
2	+	=	6
4	+	=	5
7	+	=	8
5	+	=	2
3	+	=	9
6	+	=	7
8	+	=	4
1	+	=	2

SIGMAR POLKE 'Solutions V (Lösungen V)', Lacquer on canvas, 150x125.5cm, 1967 @ Rheingold Collection



Hong Seung-Hye 'Organic Geometry', inkjet print, 40x40cm, 2014, black

BEAUTIFUL CYNICISM

씩어진, 씩어지지 않은

현대 사회를 은유하는 자신만의 실험적인 상징 언어를 가진 홍승혜, 황규태, 오운석, 그리고 시그마 폴케를 '전기적 방식'으로 읽어볼 수 있는 전시가 한창이다. 네 명의 작가는 저들이 끝끝내 버려온 '도구'로 지속해서 써 내려온, 자기고백과 반성에 비추어 우리의 동시대를 성찰한다.



Hwang Gyu-tae 'Pixel Lady', Digital Print, 120x250cm, 2000

“돌이켜보면, 나는 늘 돌이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과거는 주어져고 미래는 한없이 불확실하다. 결국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간의 의해 변화하는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홍승혜-

<Alibis: Sigmar Polke 1963-2010>

작가에게 필요한 '알리바이'란 무엇일까? '20세기 가장 탐욕스러운 실험 예술가'라고 불리는 독일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 시그마 폴케. 회화, 사진, 영화, 인쇄, 조각 등 50여 년간 예술의 영역과 기법과 재료 등을 자신만의 뛰어난 이해와 결합력으로 '변종'해 어떤 규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예술을 했던 그는, 동서독의 분열과 물락과 통합을 모두 목격한 격변하는 현대사의 증인이었다. 2010년 세상과 일별한, 전후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인 시그마 폴케의 대표작 300여 점을 한자리에서 조망 가능한 첫 번째 대규모 회고전이 8월 3일까지,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다.

Hong Seung-Hye <Reminiscence>

홍승혜의 이미지는 모니터에서 탄생한다. 컴퓨터 포스트샵 프로그램의 기본단위인 '픽셀'을 조합, 반복, 분해, 순열해 새로운 이미지로 증식시켜온 작업을 통해 세포처럼 '살아 있는 움직임'을 부여해온 작가가 다루는 대주제는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이다. 기만 두면 안정 상태로 보이는 시각의 그리드인 픽셀을 쪼개고 풀고 겹치고 안과 밖으로 던져도 보는 가운데 탄생되는 불안한 질서와 불협화음은 마치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사건들처럼 불확정적이고 불확신한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흔들어 깨우는 작은 도전이다. 8월 17일까지 국제갤러리 K2,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열린다.